



## 장하성 대사 "한중일 협력 강화해 FTA 추진 가속화해야"

기사입력 2020-12-06 17:10



장하성 주중 한국대사.2018.11.6/뉴스1 © News1 김명섭 기자

(서울=뉴스1) 윤다혜 기자 = 장하성 중국주재 한국대사가 "중국·일본과 협력을 강화해 한중일 자유 무역협정(FTA)이 추진되길 바란다"고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.

장 대사는 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"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(RCEP) 체결로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"며 이같이 말했다.

RCEP는 중국 주도 하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-태평양 15개국이 참여한 경제 협정으로, 세계 국내총생산(GDP)의 30%, 세계 인구 30%, 세계 무역규모 28.7%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이다. 지난달 15일 모든 회원국이 공식 서명을 마쳤다.

그는 최근 체결된 RCEP가 세계 최대 규모의 FTA라는 점을 언급하며 "이번 협정으로 15개 회원국이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등 시장 개방 수준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"고 RCEP를 높게 평가했다.

장 대사는 "향후 RCEP 회원국 간 무역을 확대하고 가치사슬 연계가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중 양국

의 경제협력도 강화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그는 특히 한중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선 '한중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해 투자와 상품,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더 자유롭게 교역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'고 강조했다.

장 대사는 미국의 신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, 미국 등 주요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을 유지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.

dahye18@news1.kr

- ▶ 네이버 메인에서 [뉴스1] 구독하기!
- ▶ 뉴스1 바로가기 ▶ 코로나19 뉴스

© 뉴스1코리아(news1.kr)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---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421&aid=0005033657>

---